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의 농업

에도 시대 시나가와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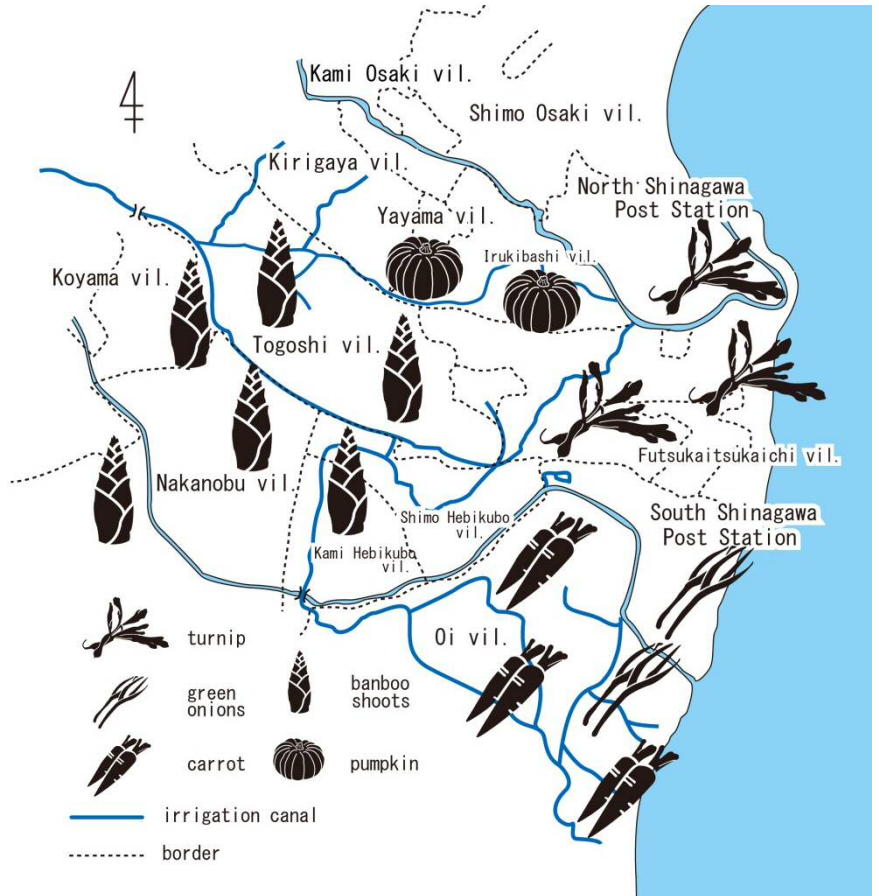
에도 시대의 시나가와는 농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논에서는 쌀을, 밭에서는 보리·조·팥·무·가지·파·순무·당근·호박·죽순 등을 재배했습니다.

이러한 작물 중에는 재배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43년의

기록에는 오이(大井) 당근, 시나가와 파라는 채소가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이루키바시 호박, 도고시 죽순, 시나가와 순무 등이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에도 근교의 지명이 붙은 채소는 '에도 채소'라 불리며, 지역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시나가와의 에도 채소

이루키바시 호박: 1638년, 다쿠안 소호라는 승려가 교토 방면에서 씨앗을 들여와,



▲시나가와의 '에도 채소' 재배 분포도

이루키바시무라 마을의 벼슬아치인 마쓰바라 쇼자에몬에게 재배하게 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집니다. 껍질에 주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1930년대 무렵까지 간토 지방에서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이루키바시 호박
(도쿄도 농림종합연구센터 소장)

도고시 족순: 1772년~1781년경 해운업자인 야마지 지로베에 가쓰타카가 사쓰마번(주로 지금의 가고시마현)에서 족순대를 들여와, 도고시에서 재배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 후 인근 농가에 퍼져, 부근 일대는 큰 규모의 산지가 되었습니다.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야마 1초메에는 1806년에 세워진



▲야마지 지로베에 가쓰타카의 묘비
(시나가와구 지정 사적)

가쓰타카의 묘비가 있습니다.

시나가와 순무: 1804년에 사쓰마번이 편찬한 자료에는 시나가와 순무를 막부에 바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순무는 뿌리가 약간 길고, 절임 재료로 애용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자원 순환 시스템

농촌에서는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심부의 무가 저택이나 상점가와 계약을 맺고, 분뇨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대금은 가구주의 귀중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분뇨 수거에 의해 도심부의 위생 상태가 유지되고, 가져온 배설물로 키운 농작물이



▲왼쪽이 시나가와 순무
(출처: 국립 공문서관 소장 『농업 도설』)

도심부로 운반되는 자원 순환 시스템이
작용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농촌의 기억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지대가
택지로 개발되자, 채소는 거의 재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나가와에는 오이의 스이진,
다키오지이나리샤 신사 경내의 못, 오이·
하라의 스이진이케 못 등 과거에 채소
세척장으로 쓰였던 못이 남아 있습니다.

오이·하라의 스이진이케 못가에는 이 장소가
옛날에 채소 세척장이었음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잃어버린 당시 풍경을
상기시킵니다.



▲오이·하라의 스이진이케 못(시나가와구 지정 사적)